

2022년 글로벌 교역 전망

박진혁 | 부전문위원(3705-6149)

김위대 | 경제리스크분석부장(3705-6240)

- [21년 동향] 지난해 글로벌 상품교역량은 경제활동 재개, 기저효과 등으로 4~5월 중 큰 폭 증가(16~25%, yoy)한 후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다소 둔화. 연간으로는 +10.8%(WTO)
- [22년 전망]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, 백신 접종 가속화, 오미크론 이후 코로나의 풍토병 전환 여지, 공급병목 완화 가능성 등으로 연간 5~6% 내외 증가할 전망
 - 주요국들의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생산과 투자가 코로나19 이전 추세를 회복하면서 북미, 유럽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교역 증가세 지속
 - 공급망 문제는 팬데믹 상황과 크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,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진정되거나 치사율 등 위험도가 제한적인 수준을 보일 경우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
- [하방 리스크] 현재의 교역 환경(수입수요 차별화·공급망 차질)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**고인플레이션** 파급효과 및 **美中 갈등** 등이 심화할 경우 예상보다 글로벌 교역이 위축될 가능성 잠재
 - (수입수요 차별화) 올해에도 코로나19가 가장 큰 하방리스크로 작용하는 가운데 백신접종률 및 재정지출 규모 등 각국의 코로나 대응력에 따라 수입수요의 격차가 확대
 - (공급망 차질) 수요 증가세에 비해 생산·하역 차질이 계속되고 운송비 상승세 등이 지속될 경우 교역 회복세를 제약
 - (고인플레이션→긴축) 글로벌 각지에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물가 오름세 우려가 확대되고 있어, 이에 따른 각국의 조기 긴축 전환 시 수입수요 둔화 유발
 - (美中 갈등)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신장지역 인권문제, 중국의 대만 압박 등과 맞물려 중국의 對美수입 합의 이행이 어려워질 소지
- [시사점] 글로벌 교역은 '22년에도 5~6% 내외의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나, 하방 요인들이 예상보다 강화되는 모습인 데다, 연중으로도 제반 여건상 교역여건이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소지가 있어 이에 더욱 유의할 필요
 - IMF는 '22년 세계경제 전망(1.25일)에서 글로벌 교역을 평가하며 백신 보급 확대와 경제 성장세에 따른 교역 회복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('22년 +6.0%)
 - 그러나 오미크론 이후 '코로나의 풍토병 전환'이 예상보다 어려워질 경우 글로벌 서비스업 수요 회복은 지연될 것이며, 이에 따른 상품교역 위축 가능성 상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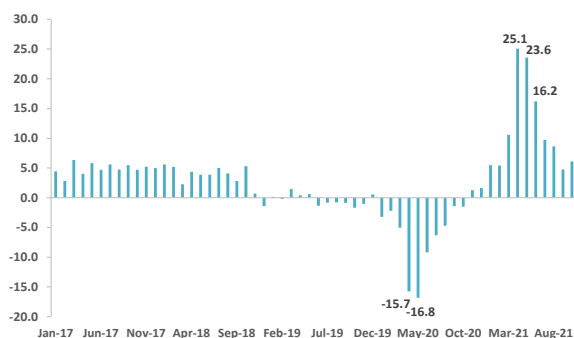
□ [21년 동향] 지난해 글로벌 상품교역량은 경제활동 재개, 기저효과 등으로 4-5월 중 큰 폭 증가(16~25%, yoy)한 후 다소 둔화

- 상반기 중 백신 접종 가속화와 각국의 이동제한 완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재개되며 교역도 확대
 - 상품교역 증가율은 '20년 -5.3%에서 '21년 +10.8%(WTO 추정치)로 회복. 기저효과가 크게 반영된 '21.4월에 +25.1%(yoy), 5월 +23.6%로 사상 최고치 기록(그림1)
- 6월 이후에는 델타 변이 확산, 기저효과 약화 등으로 회복세가 다소 주춤
 - 전체 상품교역의 30%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에서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재개 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둔화세 확대
 - 선진국의 수입 증가율은 6월 +16.2% → 8월 +8.1% → 10월 +5.2%로 크게 둔화한 반면, 신흥국은 +18.6% → +15.9% → +12.4%로 두자릿 수 증가율 유지
- 11~12월 중에는 오미크론 감염 급증에 따른 각국의 방역조치 재강화,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회복세가 더 둔화되었을 것으로 추정
 - 중국 주요 8개 항구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이 11월 -7.4%(yoy), 12월 -1.4%에 그쳐 9월(+8.3%)과 10월(-0.6%) 대비 저조

□ [22년 전망] 세계경제 회복세 지속, 백신 접종 가속화, 오미크론 이후 코로나의 풍토병 전환 여지, 공급병목 완화 가능성 등으로 연간 5~6% 내외 증가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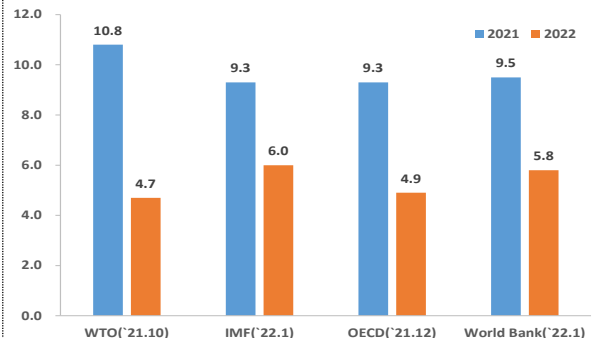
- 주요국들의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더라도 생산과 투자가 코로나19 이전 추세를 회복하면서 북미, 유럽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교역 증가세가 지속(그림2)
 - '22.1월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이 아시아 10개국에서 우선 발효되면서 역내 각국의 교역증진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
- 공급망 문제는 팬데믹 상황과 크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,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진정되거나 치사율 등 위험도가 제한적인 수준을 보일 경우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

〈그림1〉 글로벌 교역 증감율 추이(yoy%)



주: 상품부문 자료: CPB 네덜란드 경제분석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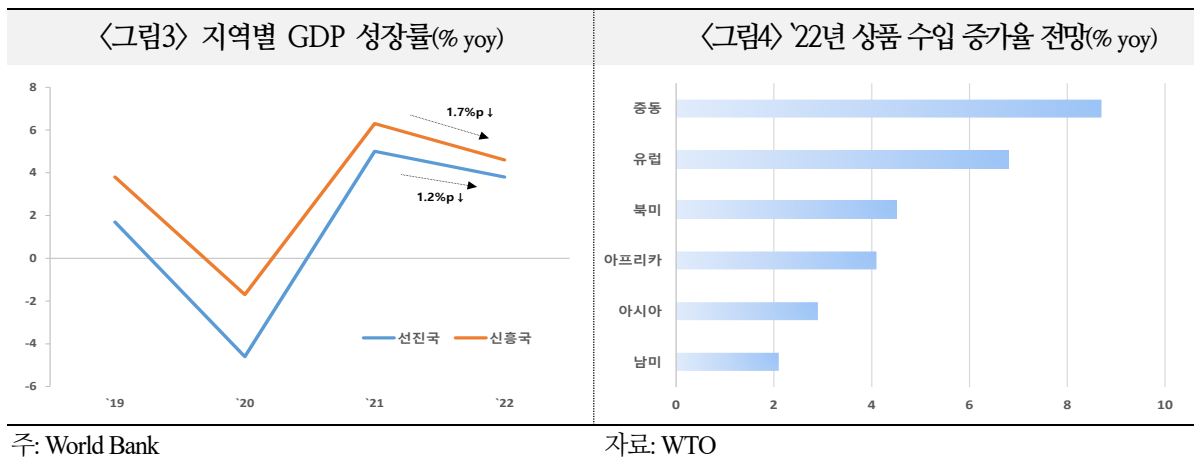
〈그림2〉 2022년 글로벌 교역량 전망(yoy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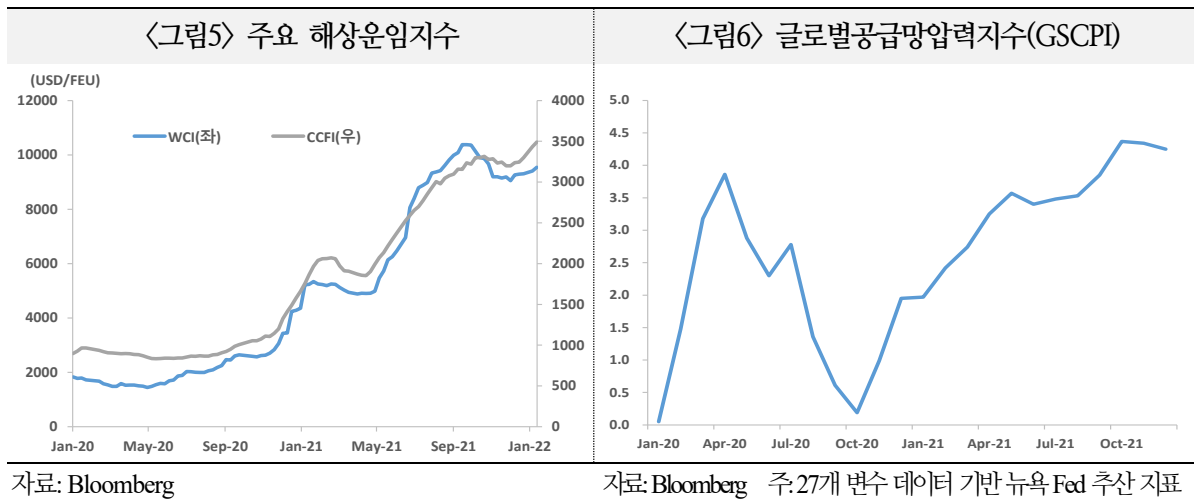
주: WTO는 상품 부문만 집계, 나머지는 서비스 포함.
자료: 국제금융센터 취합

□ [하방 리스크] 현재의 교역 환경(수입수요 차별화공급망 차질)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高인플레이션과 파급효과 및 美中 갈등 등이 심화할 경우 예상보다 글로벌 교역이 위축될 가능성 잠재

- (수입수요 차별화) 올해에도 코로나19가 가장 큰 하방리스크로 작용하는 가운데 백신접종률 및 재정지출 규모 등 각국의 코로나 대응력에 따라 수입수요의 격차가 확대
 - World Bank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과 정부 지원 축소 등으로 신흥국('21년 6.3%→'22년 4.6%: 1.7%p↓)의 성장률 둔화 폭이 선진국(5.0%→3.8%: 1.2%p↓)에 비해 커지면서 지역간 수입수요의 불균형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(그림3)
 - 교역 vs 성장률간의 장기탄력성(2:1 내외) 등 감안 시 성장 둔화 폭이 커질 경우 교역에도 부담
 - 백신접종률이 높은 유럽(64.0%)과 북미(67.0%)를 중심으로 수입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고, 동남아시아(46.0%), 아프리카(8.0%) 등은 더딘 회복세를 보일 전망(WTO)
 - '22년 수입 증가율은 북미(+4.5%), 유럽(+6.8%), 중동(+8.7%)이 높은 반면 남미(+2.1%), 아시아(+2.9%)는 낮게 형성(WTO, 그림4)



- (공급망 차질) 수요 증가세에 비해 생산·하역 차질이 계속되고 운송비 상승세 등이 지속될 경우 교역 회복세를 제약할 소지
 - '22년 초에도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는 가운데, World Bank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공급 병목현상 심화를 글로벌 교역의 단기 하방리스크로 지적
 - 중국발 컨테이너 운송기간은 팬데믹 이전 평균 45일에서 '22년 1월 114일(미국 도착 기준)로 크게 늘어났으며, 글로벌 공급망 압력*도 '21.10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(그림6)
 - * 뉴욕 Fed가 국가별 공급망 변수, 가격지수 등 27개 변수 데이터를 반영하여 '글로벌공급망압력지수(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)'를 추산
 - 한편, 세계컨테이너운임지수(WCI)와 중국컨테이너운임지수(CCFI)는 '21.9월 급등세를 보인 후 일시 둔화하였으나 연초 이후 상승세를 재개
 - UNCTAD는 운송비용 급등세가 이어질 경우 '23년까지 글로벌 수입물가지수 11% 상승 전망



- (高인플레이션→긴축) 글로벌 각지에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물가 오름세 우려가 확대되고 있어, 이에 따른 각국의 조기 긴축 전환 시 수입수요 둔화 유발
 - 주요 IB들은 '22년 선진국과 신흥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'21년(3.6%, 2.9%) 보다 더 높은 3.8%와 4.2%로 추정(Bloomberg 컨센서스)
 - 국가별로는 미국('21년 +4.7%→'22년 +4.8%), 영국(+2.6%→+4.7%), 유로존(+2.6%→+3.1%), 일본(-0.3%→+0.8%), 중국(+0.9%→+2.2%), 인도(+5.1→+5.3%) 등으로 전망
 - 美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할 경우 여타 국가들도 긴축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, 이는 글로벌 교역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
 - '22년 중 미국(85bp), 영국(55bp), 캐나다(75bp), 노르웨이(80bp) 등에서 정책금리의 큰 폭 인상을 전망(Bloomberg 1 월 컨센서스)
- (美中 갈등)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신장지역 인권문제, 중국의 대만 압박 등과 맞물려 중국의 對美수입 합의('21년까지 \$2,000억 규모의 美 제품 구입) 이행이 어려워질 소지가 있으며, 이 경우 글로벌 교역량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
 - 미국은 신장 인권문제에 대응하여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데 이어 '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' 제정을 통해 신장산 제품 수입을 제한('21.12.23일)하였고,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
 - 또한 대만 이슈도 단순히 군사안보적인 차원을 넘어, 미국에게는 반도체 생산기지로서의 중요성과 관련되어 있어 양국관계의 악화요인으로 작용
 - 중국은 시진핑 주석 3연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'하나의 중국'을 강조하며 대만 문제에 대해 양보없는 초강경 입장을 고수

□ [시사점] 글로벌 교역은 '22년에도 5~6% 내외의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나, 하방 요인들이 예상보다 강화되는 모습인 데다, 연중으로도 제반 여건상 교역여건이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소지가 있어 이에 더욱 유의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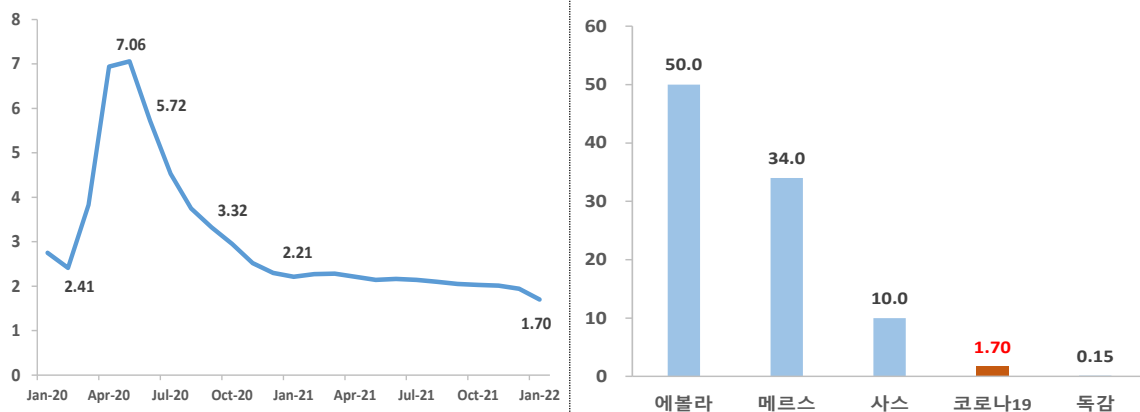
○ IMF도 '22년 세계경제 전망(1.25일)에서 글로벌 교역을 평가하며 백신 보급 확대와 경제 성장세에 따른 교역 회복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('22년 +6.0%)

○ 그러나 오미크론 이후 '코로나의 풍토병 전환*'이 예상보다 어려워질 경우 글로벌 서비스업 수요 회복은 지연될 것이며, 이에 따른 상품교역 위축 가능성 상존

* 최근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치사율은 22.1.15일 1.70%로 하락. 이는 과거 유행병들에 비해 크게 낮고 독감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(그림7)

– 또한 최근 중국경제 둔화 전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, 중국과 연계된 신흥국의 수출 회복세도 제한될 수 있어 美·유럽 등 선진국 수입 증가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신흥국의 수출 실적 유지에 부담이 될 소지

〈그림7〉 코로나 치사율 추이(좌, %) 및 주요 유행병 치사율(우, %)



자료: Our World in Data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,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문의: 02-3705-6149 혹은 jhpark@kcif.or.kr, 홈페이지: www.kcif.or.kr